

전통 색동이미지를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이 미 석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that Utilize the Traditional Saekdong Image

Mi-Seok Le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Han Nam University

(투고일: 2008. 11. 12, 심사(수정)일: 2009. 2. 16, 게재확정일: 2009. 2. 20)

ABSTRACT

This is a study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with applied traditional Saekdong-im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unique cultural products which combine traditional korean images with modern feel by utilizing traditional Saekdong-image.

Saekdong has been an object of deep attachment and regarded as a tool for expressing korean imag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Chosun dynasty shows a wonderful growth of fashion not only in dress but also in such accessories as patchwork wrapping-cloth and Saekdong, which imply a lot on formation or color arrangement.

Approximately 24 pieces of cultural products that can be used in daily life were created using Saekdong, including traffic or credit card cases, name card cases, pouches, coin purses, bags, vest, teapot wrapping-cloth, brooch. After design plans were made for each works, natural dyes were used to dye(dip dyeing) the fabrics(cotton, silk, linen) by theme. In addition, the increased quality of the products will be a competitive edge in the world market where products compete with no national bounds.

Key words: Saekdong(색동), cultural products(문화상품)

I. 서론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전통 색동은 한국 고유의 색채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줄무늬로서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디자인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아시아나 항공사는 항공기와 승무원의 복장에 색동이미지를 넣어 디자인하였다. 아시아나 항공사의 심볼은 색동저고리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는데, 색동저고리는 예로부터 명절이나 돌 등 기쁜날에 입던 옷으로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지닌 디자인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색동은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높은 활용가치를 지닌다고 사료되며, 더 적극적인 응용과 개발이 필요시 된다 하겠다.

최근 김여원, 최종명¹⁾의 연구에 따르면 색동옷으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색동저고리의 이미지라고 하였고, 색동옷에 대한 느낌으로는 따뜻하다, 부드럽다, 귀엽다 등의 느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제품에 색동을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들은 장신구와 가방에 남학생들은 셔츠와 장신구에 응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현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복식과 공예 각 분야에서 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조형성을 중심으로 디자인개발을 위한 색동의 미적고찰, 색동의 색채분석과 색의상징성, 색동의 활용방안 제시, 색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분석 등에 관한 연구이며 실제 작품으로 개발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역시 문화상품 개발의 육성방안연구,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한국패션문화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응전략 등 문화상품개발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시장현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디자인의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 색동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응용함으로써 현대인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한국적 전통 이미지가 담긴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제작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색동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그리고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색동 유물자료와 사진자료 수집을 통하여 전통 색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문화상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아이템 선정 및 디자인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색동의 색상을 내기 위한 천연염색과 전통바느질기법을 이용하여 실물 제작을 하였다.

II. 색동

1. 색동의 정의와 특징

원색조화의 극치를 보이는 색동은 우리민족의 독특한 색채감정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한국인의 생활 속에 이어져오고 있다.

색동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오색 빛깔의 형질을 층이 지게 차례로 잇대어 만든, 아이들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맷감'으로 되어 있다.²⁾

또한 여러 복식학자들에 의하면 '색동은 원색비단 조각을 잇대어 만든 어린이가 주로 입는 저고리의 소맷길로, 색동의 뜻은 색을 동 달았다'로 동이란 한 칸을 말하며 한가지 색이든 오방색이든 모두 색동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색색으로 동을 이어서 만들어 색동이라고 하였다.

색동의 유래를 살펴보면, 저고리 등에 소매를 달 때 중간이 비어서 색동을 집어 넣었는데, 그 이유로서 우리나라의 수직기 폭이 40cm를 넘지 않아서 소매를 달 때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색동을 사용하였다는 설과, 고려시대에 승려들이 그들의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입혔다는 설도 있다.³⁾

또한 원래 색동을 사용한 의미는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가지 색을 사용함으로써 오행을 두루 갖추어 액(厄)을 피하고 어린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입는 오방장두루마기, 저고리, 마고자, 배자 등에서 볼 수 있다.

색동에 사용된 색의 배합이나 배열에는 음양의 색

인 청, 적 과 오행색인 청, 적, 황, 백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음양 오행설에 입각한 색동의 사용에는 이성 기간에 또는 만물의 구성원리에 적용하는 색채개념으로서의 음양과 오행사상의 상생, 상극의 개념이 개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예는 색동의 색채배열에서 상생 상극의 색채배열 중 상생의 배열이 많은 점으로 보아 음양오행설의 개입여부를 볼 수 있다.⁴⁾

색동에 사용한 오색은 오행(五行), 오덕(五德), 오미(五味)와 같은 관념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뜻이 포함된 듯하며, 액을 피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주로 아이들에게는 색동저고리를, 신부에게는 원삼, 활옷 등을 입힌 것으로 보여진다.

색동에 즐겨 사용된 색은 적, 황, 백, 청 등으로 오방색 중 검정색을 제외하고, 여기에 분홍, 자주, 초록, 보라와 같은 색들이 한 두가지씩 첨가되었다.

이와같이 색동에는 오행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구성된 색동에 분홍과 초록 등이 가미되기도 하지만 색동마다 검정색이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흑색이 북방이나 죽음을 의미하므로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뺀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⁵⁾

또한 색동에 즐겨 사용된 백색은 어느 색과도 잘 조화되면서 주변색을 더욱 선명하게 강조해주어 당시대인들의 탁월한 색채조화 능력과 융통성 있는 미적 취향을 볼 수 있다.

색동의 색 조화는 한민족이 발견한 가장 화려한 색채조화라 하겠으며, 의상에 화려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시가에 노출시켜 액의 접근을 막으려한 의지가 엿보인다.

2. 복식과 침선소품류에 나타난 색동

우리민족은 명절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이나 혼례와 같은 예를 올리는 날, 그리고 무속신앙을 통해 액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날에는 색동옷을 착용함으로써 복식을 통하여 한국인이 지닌 독특한 미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색동의 형식은 처음 줄무늬 형식으로 고구려벽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서벽 귀부인의 치마에서 세로줄무늬의 색동치마를 볼 수

있으며, 덕흥리 벽화의 부인 교거도의 치마에도 붉은 줄이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감신총 여인의 포에서도 각각 다른 색의 줄무늬로 된 색동 포(袍)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복식에서 색동의 사용은 주로 어린 아이들의 저고리<그림 1>, 마고자<그림 2>, 두루마기<그림 3>⁶⁾, 원삼<그림 4>⁷⁾, 활옷, 무복(舞服)<그림 6>⁸⁾, 무복(巫服), 굴레<그림 7>등에 애용되었으며, 침선소품류<그림 7~13> 등에도 사용되었다.

첫 돌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색동옷은 어린이의 상징적인 표상이 되었으며 색동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등의 소매에 이용되었다.<그림1~3>,<그림5>⁹⁾ 색동 소매가 달린 옷을 색동을 수식으로 사용하여 색동 두루마기, 색동 마고자, 색동 저고리 등으로 분류하였다.¹⁰⁾

또한 색동옷은 까치두루마기, 까치저고리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색동두루마기는 소매뿐 아니라 섹 부분에도 색동을 넣었으며 직선줄무늬 외에 삼각형, 사각형의 비단조각을 이어붙여 장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색동옷은 옷을 짓고 남은 자투리 색 천을 이어 아름답게 꾸며주어 조각보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있다.

특히 일반가정에서는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혔는데, 복건이나 굴레 같은 쓰개 종류와 두루마기나 마고자 같은 겹옷을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저고리에라도 색동소매를 달아 까치두루마기를 대신하여 입혔던 듯하다.¹¹⁾

김홍도의 평생도 병풍에는 굴레를 쓰고 색동옷을 입고 돌상을 받는 남아의 모습<그림 5>이 묘사되어 있으며, 1920년대 영국화가 엘리자베스키스는 '코리아'라는 책에서 한국 어린이의 색동옷 차림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1925년에 발간된 최초의 재봉서적인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에도 색동저고리 짓는법이 아동옷을 대표하여 설명되어질 정도로 색동저고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입혀졌던 어린이옷이었다.

색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조화는 빨강, 노랑, 흰색, 청색, 분홍, 초록의 6가지 색으로 구성된 색동이다.¹²⁾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정정완'은 남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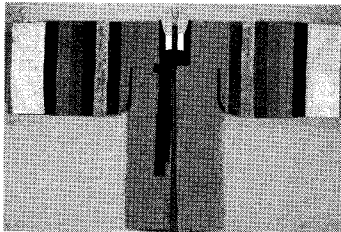
〈그림 1〉 색동 저고리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2〉 색동 마고자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3〉 색동 두루마기
(출처: 옛어린이옷, p. 67)



〈그림 4〉 색동 원삼
(출처: 服飾, p. 62)



〈그림 5〉 돌잔치
(출처: 壽福, p. 103)



〈그림 6〉 여령복
(출처: 조선시대진연친찬진하병풍, p. 60)

색동 두루마기에 남색끝동을 대고 옥색, 분홍, 연두, 다홍, 노랑, 남색, 분홍, 자주, 연두, 다홍, 노랑, 남색, 분홍, 연두, 자주 순으로 색동을 달고, 여자아이는 자주색 끝동에 어깨끝동에는 중간 분홍색을 넣는다.¹³⁾

그리고 왕실을 비롯해서 상류계급에서 주로 착용하던 원삼이나 활옷에도 한삼이 붙기 전 소매 끝에 두세줄의 색동을 첨가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소매에 다홍, 노랑, 남색, 분홍, 연두, 자주 등 6가지 색동이 들어가거나, 남색, 다홍, 노랑, 자주, 흰색 등 5색의 색동이 들어간다.

무복(舞服)에서는 주로 한삼부분에 색동을 사용했는데 한삼의 울동과 어우러져 화려한 색채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6〉의 여령복의 한삼에는 오색(五色)의 색동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무복(巫服)에도 색동은 보편화 되어 있다. 색동은 굿을 할 때 원색의 시각효과로 주술적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굿에서 무당이 착용한 포의 색동소매와 색동 한삼, 색동의 깃발들은 신과 교통하는 주력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다.¹⁴⁾

이렇듯 화려한 색채조화 역시 음양오행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색동에 사용된 오행색은 길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직접적 수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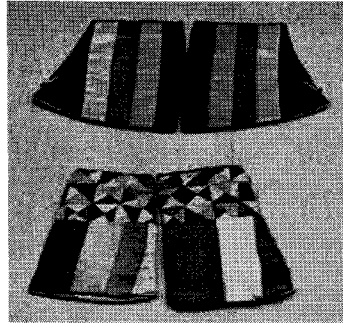
의복에 나타난 색동의 색 배열 이외에 굴레〈그림 7〉¹⁵⁾, 토시〈그림 8〉, 주발보와 바리보〈그림 9〉¹⁶⁾, 조각보〈그림 10〉¹⁷⁾, 〈그림 11〉¹⁸⁾, 누비보〈그림 12〉¹⁹⁾, 인두판〈그림 13〉 등 침선소품류들에서도 보여지는데, 이들은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복식류 전반에서 나타나는 색동은 오색의 비단형질을 색색이 정성스럽게 이어붙였는데,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원리에 따라 자연현상이 운행되며 인생의 길흉화복이 지배된다는 사상이 색동의 색 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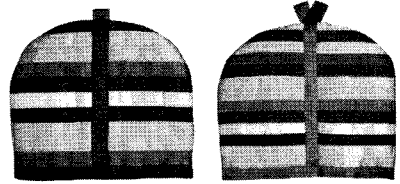
조선시대 색동 유물에서 보이는 특징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원삼, 활옷 등 주로 상의류의 소매 부분에 색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복식류 뿐만 아니라 보자기나 장신구 등의 침선소품류에도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색동옷은 명절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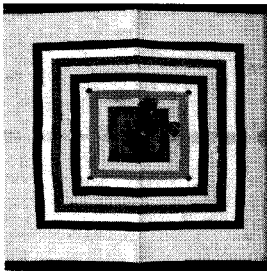
〈그림 7〉 색동 굴레
(출처: 옛어린아 옷,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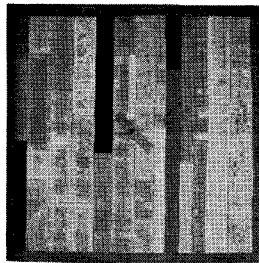
〈그림 8〉 색동 토시
(출처: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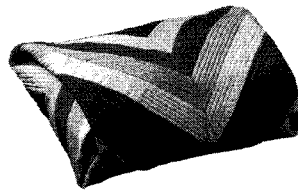
〈그림 9〉 색동 바리보, 주발보
(출처: 옛보자기,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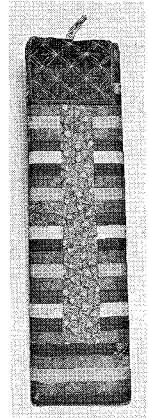
〈그림 10〉 색동 보
(출처: 옛보자기, p. 53)



〈그림 11〉 색동 보
(출처: 옛보자기, p. 105)



〈그림 12〉 색동 누비보
(출처: 옛보자기, p. 311)



〈그림 13〉 색동 인두판
(출처: 숙명여대박물관)

돌, 혼례 등 기쁜날에 입던 옷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환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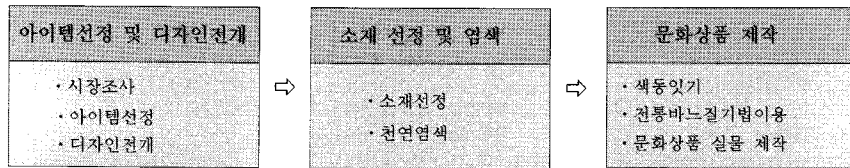
Ⅲ. 문화상품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상품은 전통소재, 천연염색, 전통 바느질기법 등을 이용한 수공예적인 것으로 시중에서 대량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문화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한국적 문화상품의 명품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문화상품개발 과정은 다음 〈그림 14〉와 같다.

1. 아이템선정 및 디자인

첫째, 2007년 11월 시장조사²⁰⁾를 통해 현재 문화상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화상품(섬유, 바느질관련상품)류의 아이템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종류와 소재 및 기법, 가격대는 〈표 1〉과 같다. 특히 색동을 이용한 상품들은 대부분 색동으로 짜여진 원단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시장조사를 토대로 하여 기념품 또는 실용품으로서 가격이나 크기면에서 부담되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선



〈그림 14〉 문화상품개발과정

〈표 1〉 문화상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침선소품의 종류

(2007. 11 현재)

종류	소재 및 기법	가격대	종류	소재 및 기법	가격대
지갑	감사, 양단, 누비	8,000~30,000	조끼	누비, 조각잇기	80,000~400,000
명함집	모시, 감사, 양단	15,000~30,000	넥타이	양단, 조각잇기	70,000~120,000
카드집	모시, 양단, 누비	8,000~40,000	알차마	모시, 광목, 무명	45,000~55,000
도장집	감사, 양단, 누비	5,000~10,000	스카프, 목도리	명주, 누비	55,000~180,000
안경집	누비, 자수	22,000~30,000	배개	양단, 조각잇기	35,000~55,000
필통	양단, 누비	2,000~20,000	방석, 쿠션	모시, 광목, 누비	35,000~55,000
주머니	양단, 감사, 노방	5,000~12,000	발	모시, 조각잇기	35,000~250,000
가방	모시, 양단, 누비	30,000~75,000	이불	양단, 모시, 누비	300,000~500,000
책갈피	모시, 감사	6,000~9,000	골무	명주, 공단, 조각	2,000~20,000
핸드폰코리	양단, 자수, 누비	1,500~20,000	타래머선	목공단, 자수	18,000~55,000
손거울	자수, 조각잇기	12,000~35,000	바늘꽃이	명주, 양단, 모시	12,000~55,000
브로치	명주, 조각잇기	25,000~32,000	실패	양단, 자수	15,000~20,000
조명등	감사, 조각잇기	90,000~200,000	바늘질노리개	공단, 자수	12,000~20,000
러너	모시, 조각잇기	35,000~120,000	가윗집	공단, 자수	25,000~35,000
킵받침세트	모시, 양단, 감사	20,000~35,000	오방낭	양단, 감사, 자수	30,000~70,000
다포, 다기보	모시, 광목, 감사	25,000~30,000	조각보	모시, 조각잇기	45,000~900,000
식탁매트	모시, 광목, 감사	18,000~25,000	한복인형	양단, 감사	25,000~75,000

정된 아이টে므로는 지갑류, 가방류, 조끼, 브로치, 다기보 등이다.

셋째, 각각 선정된 아이টে별로 디자인개발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느낌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 하였다.

또한 전통 색상의 색동 이미지톤을 천연염색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고자 하였으며, 아이টে별로 전통 색동 잇기 방법으로 색동의 폭을 변화시키고 부분적으로 색동을 넣어 전통을 살리면서 색동이미지의 부드러움과 귀여움을 살렸다.

2. 소재 및 염색

1) 소재

본 연구의 문화상품제작에 사용한 소재로는 한국

전통소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실용적소재인 무명과 모시, 광목 그리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색동양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죽과 비즈를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2) 염색

다양한 색동의 색을 내기 위해 천연염색을 하였으며, 사용한 염제로는 괴화, 쪽두서니, 밤껍질, 소목, 오배자, 정향, 자초, 홍화, 쪽 분말 등을 사용하여 15가지 색상을 냈다.〈표 2〉

염제의 양은 괴화, 소목, 정향, 오배자, 쪽 분말의 경우 직물 무게와 동일하게 사용했으며, 홍화, 자초는 직물 무게의 2배, 쪽두서니와 밤껍질은 직물 무게의 3배를 사용하였다. 매염제로 이용한 백반은 직물의 5%, 철은 직물의 2%를 사용하였다.

〈표 2〉 색동에 이용한 천연염재의 종류 및 색상

색상	염재	매염	염액추출
황색	괴화, 징향	백반	물에 넣고 끓임
적색	소목, 꼭두서니	백반	"
	홍화	무매염	물에 담귀 삭힘
청색	쪽 분말	무매염	하이드로실파이트 이용
자색	자초	백반	알코올로 우려냄
회색	징향, 밤껍질, 오배자	철	물에 넣고 끓임
갈색	꼭두서니, 밤껍질	철, 백반	"

〈표 3〉 염재에 따른 염액추출

방법	염재	염액추출
물에 끓임	괴화, 꼭두서니, 밤껍질, 소목, 오배자	염재를 5L의 물에 넣고 20분 정도 끓여 염액을 걸러냄. 다시 물 5L를 넣고 끓임 다음 2차 추출액을 얻어 처음염액과 혼합.
알코올에 우려냄	자초	자초가 잠길 정도의 메탄올을 부은 후 가끔 뒤적여가면서 30분간 놓아둠. 30분후 보라색의 염액을 추출한 후, 같은 방법으로 2차염액을 추출하여 처음 염액과 혼합.
물에 담귀 삭힘	홍화	홍화 1kg을 물에 담귀 일주일정도 삭힘. 삭힌 홍화를 건져 자루에 넣고 황색물이 다 빠져 나갈 때까지 주물러 황색소를 제거함. 물에 탄산칼륨을 풀어 ph 10~11로 맞춘 알칼리 용액에 홍화 자루를 넣고 30분 정도 주물러 가며 염액을 추출. 추출한 염액에 식초를 넣어 ph 6 정도가 되도록 중화시켜 염액을 만듦.
하이드로실파이트 이용	쪽분말	쪽분말 50g, 하이드로 50g, 소다회 50g 준비. 쪽분말을 물 10L에 넣고 끓임. 온도가 40도로 내려갔을 때 하이드로와 소다회를 넣고 골고루 저어 염액을 만듦.

(1) 정련과 표백

무명, 모시, 광목은 염색하기 전에 직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련을 하였다. 모시는 약 일주일정도 물에 담귀 풀기를 제거 하였으며, 광목과 무명은 스테인레스 통에 물과 세제, 광목을 넣고 30분간 끓였다. 직물에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여러 번 수세를 한 후, 광목은 표백제를 풀어놓은 통에 넣고 약 1시간 정도 담귀 표백 하였다.

(2) 염액추출

〈표 3〉과 같이 염재에 따라 염액 추출방법을 달리 하였다.

(3) 염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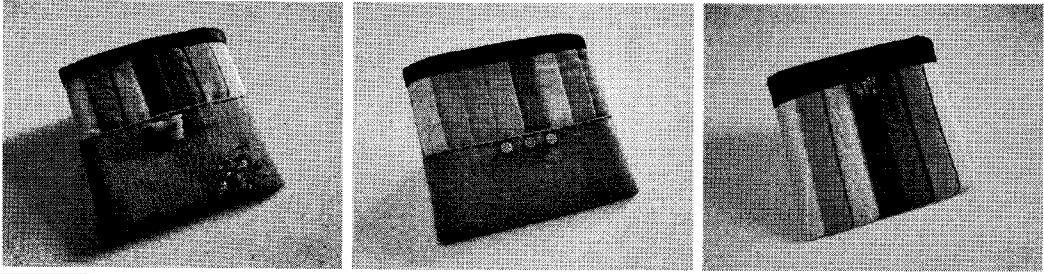
염색순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며, 철매염 시에는 첫 번째 매염단계에서 백반 매염을 하고,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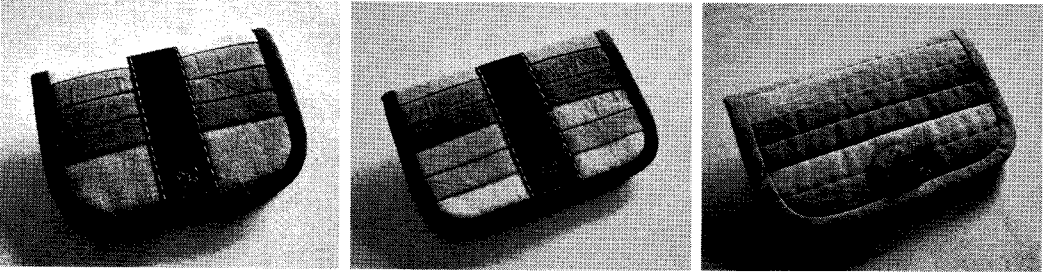
번째 매염 단계에서 철매염을 하였다. 단, 홍화와 쪽은 매염을 하지 않았으며 30분정도 염액에 염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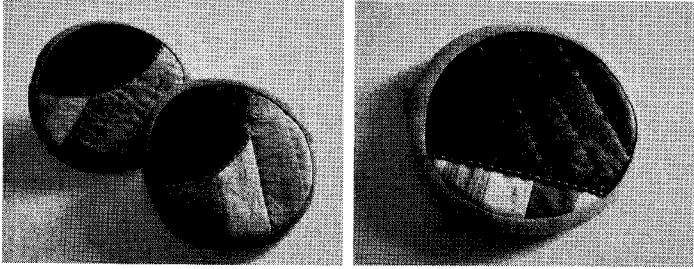
염색(15분)→수세→매염(15분)→수세→염색(30분)
→수세→매염(15분)→수세→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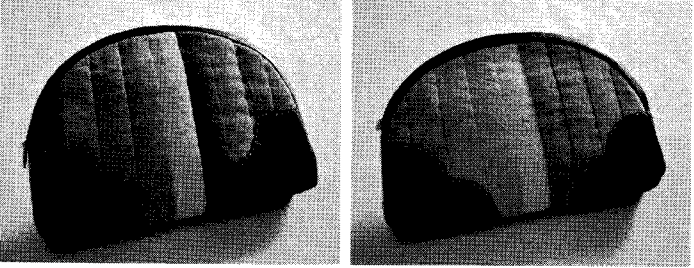
3. 전통 색동이미지를 응용한 문화상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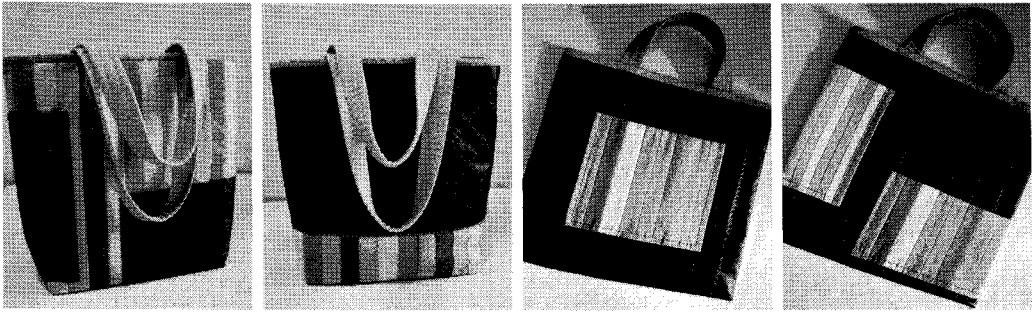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문화상품으로 개발된 아이টে모로는 카드지갑, 명함지갑, 동전지갑, 파우치, 가방, 조끼, 브로치 등의 패션소품과 생활소품인 다기보 등으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소품을 중심으로 총 24점을 실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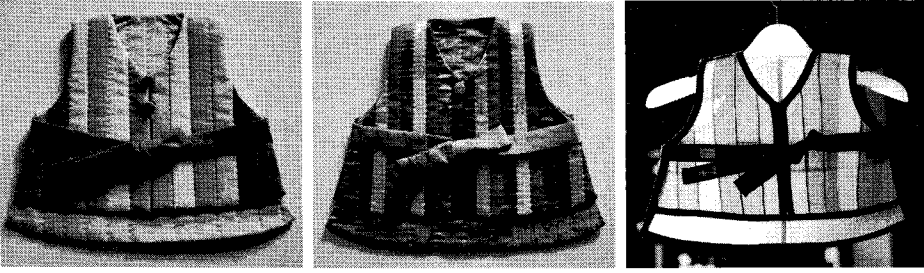
색동 카드집			
	소재/무명, 광목, 누비솜, 비즈 크기/10cm×9cm	염색/오배자, 소목, 정향, 자초, 꼭두서니, 쪽 염색 기법/1.3~1.5cm폭 색동잇기, 홈질, 상침, 누비	


색동 카드집			
	소재/무명, 광목, 누비솜, 가죽, 비즈 크기/13.5cm×10cm	염색/오배자, 정향, 자초, 꼭두서니, 쪽 염색 기법/1.5cm폭 색동잇기, 홈질, 상침, 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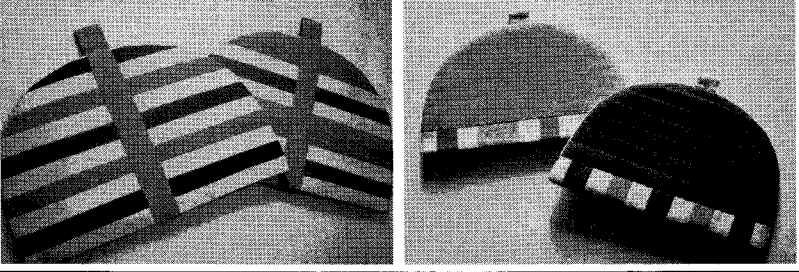
색동 전지갑		
	소재/광목, 누비솜, 가죽 크기/지름13cm	염색/오배자, 정향, 자초, 꼭두서니, 밤껍질 염색 기법/2~3cm폭 색동잇기, 홈질, 상침, 누비

색동 파우치		
	소재/광목, 누비솜, 가죽 크기/18cm×13cm	염색/괴화, 오배자, 정향, 자초, 꼭두서니, 밤껍질 염색 기법/2cm폭 색동잇기, 홈질, 상침

색동 가방				
	<p>소재/광목, 누비솜, 가죽 크기/40cm×40cm</p>		<p>염색/오배자, 소목, 정향, 자초, 꼭두서니, 쪽 염색 기법/3cm폭 색동잇기, 흙질, 상침</p>	

색동 조끼			
	<p>소재/광목, 양단, 모시, 누비솜 크기/품33cm, 앞17cm, 뒤32cm</p>		<p>염색/홍화, 오배자, 소목, 정향, 자초, 꼭두서니, 쪽 염색 기법/3cm폭 색동잇기, 누비, 곱솔</p>

색동 브로치				
	<p>소재/양단, 공단, 벨벳, 비즈 크기/5.5cm×8cm</p>		<p>염색/오배자, 소목, 정향, 자초, 꼭두서니, 쪽 염색 기법/흙질, 상침</p>	

색동 다기보		
	<p>소재/광목, 누비솜 크기/32cm×32cm</p>	

IV. 결론

첫째, 조선시대 색동 유물에서 보이는 특징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굴레 등 어린이복식과 원삼, 활옷, 무복(舞服), 무복(巫服) 등의 예복에 주로 사용되었고, 특히 상의류의 소매부분에 색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복식류뿐만 아니라 굴레, 보자기, 장신구 등 침선소품류에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색동은 오색의 비단형질을 색색이 정성스럽게 이어 붙였는데,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원리에 따라 인생의 길흉화복이 지배된다는 사상이 색동의 색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색동옷은 명절이나 돌, 혼례 등 기쁜날에 입던 옷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환희를 나타냈다.

둘째, 문화상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아이템 선정 및 디자인개발, 실물제작을 하였다. 시장조사를 토대로 하여 기념품 또는 실용품으로서 가격이나 크기, 파손우려 등에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문화상품으로 개발된 아이템으로는 지갑류, 가방류, 조끼, 브로치, 다기보 등으로 총 24점을 개발 제작하였다.

셋째, 문화상품 개발제작에 사용한 소재로는 광목, 무명, 모시, 색동양단 등의 전통소재와 부분적으로 가죽(leather)과 비즈를 사용하였다. 또한 색동의 색상을 내기 위해 천연염색을 하였으며, 사용한 염재로는 괴화, 쪽두서니, 밤껍질, 소목, 오배자, 자초, 정향, 홍화, 쪽 분말 등을 사용하여 15가지의 색을 냈다. 전통 색상의 색동 이미지톤을 천연염색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톤 다운하였으며, 전통 색동 잇기 방법으로 색동의 폭을 변화시키고 부분적으로 색동을 넣어 기쁨과 환희의 상징이었던 전통색동 이미지를 현대적 느낌의 산뜻함과 따듯함, 부드러운 이미지로 살려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문화상품은 전통의 재창조와 더불어 현대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에서의 접근을 통해 문화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여원, 최종명 (2007). 대학생의 색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분석. 복식, 57(7), p. 120.
- 2) 이기문 감수 (2001).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p. 1262.
- 3) 박상의 (1978). *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4) 이선재. *유교사상과 의례복*. 서울: 아세아문화사. p. 159.
- 5) 박상의. *앞의 책*, p. 25.
- 6) 경운박물관 (2005). *옛어린이 옷*. 서울: 경운박물관, p. 67.
- 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복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62.
- 8) 서인화, 박정혜. *주디반자일 편저* (2000). *조선시대전원진찬진학병풍*, p. 60.
- 9) 국립민속박물관 (2007). *장수를 바라는 마음 壽福*, p. 103.
- 10)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전통어린이복식*.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170.
- 11) 경운박물관. *앞의 책*. 서울: 경운박물관, p. 147.
- 12) 김정희 (1998). 주역의 색동화와 그 응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복식, 38, p. 143.
- 1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침선장*, p. 76.
- 14)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77.
- 15) 경운박물관. *앞의 책*, p. 101.
- 16) 허동화 (1988). *옛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p. 128.
- 17) *위의 책*, p. 53.
- 18) *위의 책*, p. 105.
- 19) *위의 책*, p. 311.
- 20) 2007년 11월 인사동 문화상품전문점인 찻길, 습리, 우리세계, 민예사랑, 가람, 통인가게, 한국관광명품점, 아리랑, 가나아트샵, 가고, 우리규방 등과 박물관의 기념품샵을 중심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문화상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